



존재 자체

천상중 1-10 박보민

선물은 누구나 받으면 기분 좋다.
그 기분 좋은 선물은 그만큼 받을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선물은 늘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태어나서부터 가족을 만나고, 숨을 쉬며 친구를 만나는 모든 우리의 삶은
이미 크나큰 선물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귀한 선물일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웃게 하기도 하고 울게 하기도 하지만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디서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한 명 한 명 누군가의 소중한 “선물”일 테니까.

